

마음껏 뛰놀고 다양한 체험 ... “서울에선 꿈도 못 꾸죠”

서울 학생들 전남 농산어촌 유학 현장

“서울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나갔는데, 여기서 아무데서나 맘껏 뛰어 놀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땅 냄새도 좋구요.”

서울에 살던 조정래(14) 군은 곡성의 작은 초등학교인 오산초에 다니게돼 좋은 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학생을 포함해도 전교생이 18명밖에 안되는 ‘작은학교’의 특성상 개인별 맞춤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조 군의 학교생활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이 아닌 대면수업을 받고, 서울에서는 학원을 다니며 배워야 했던 다양한 수업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조 군은 수업시간에 아이패드를 활용해 드론을 띄우고 방과 후 학교에서 골프와 드럼을 배운다. 중간놀이시간에는 인라인과 에스보드 등을 통해 체육활동을 한다. 영어와 수학 학교공부도 기본이다. 오산초에서는 조 군을 포함해 6학년이 3명뿐이어서 교사로부터 사실상 일대일 수업을 받고 있는 셈이다.

조 군처럼 오산초로 농산어촌 유학을 온 학생은 모두 3가구 5명이다. 유학생과 함께 개학해 1달여를 지낸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만족도는 예상 외로 높았다.

인라인·드론·골프 등 일대일 맞춤형 수업 ‘호응’

“주말에도 학교 가고 싶어요”...학부모 만족 높아

조 군의 어머니 오소연(40)씨는 “서울에서는 꿈도 못꾸는 생활이다”며 “특히 오산초는 체험 수업이 많은 학교이면서 교사들의 열정도 높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유학을 온 객관촌(14) 군은 “창의능력도 하고 골프·영어수업도 하면서, 매일 다른 과정을 배우고 있어 재밌다”며 “처음엔 별래가 많아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이 서울 학생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오산초의 유일한 6학년이었던 민해정 양도 신이 났다. 유학생들이 아니었다면 4, 5학년 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을 텐데 서울에서 친구들과 오면서 오히려 6학년 수업을 받게 된 것이다.

학부모 문해현(40)씨 역시 오산초 선택이 옳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문씨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까지 모두 학교에서 배우느라 집에 일찍 올 생각을 안 한다”며 “지금 생각으로 당연히 6개월 연장하고 싶다. 학부모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거문제에는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곡성군이 제공하는 임시 숙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았다면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유학을 결정할 때 주거할 집이 고민거리였는데, 겪어보니 사실이다라며 주거문제에 좀더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아이들은 유학오고 나서 학교에 좋은 일도 생겼다. 지난 달 광주에서 한 학생이 전학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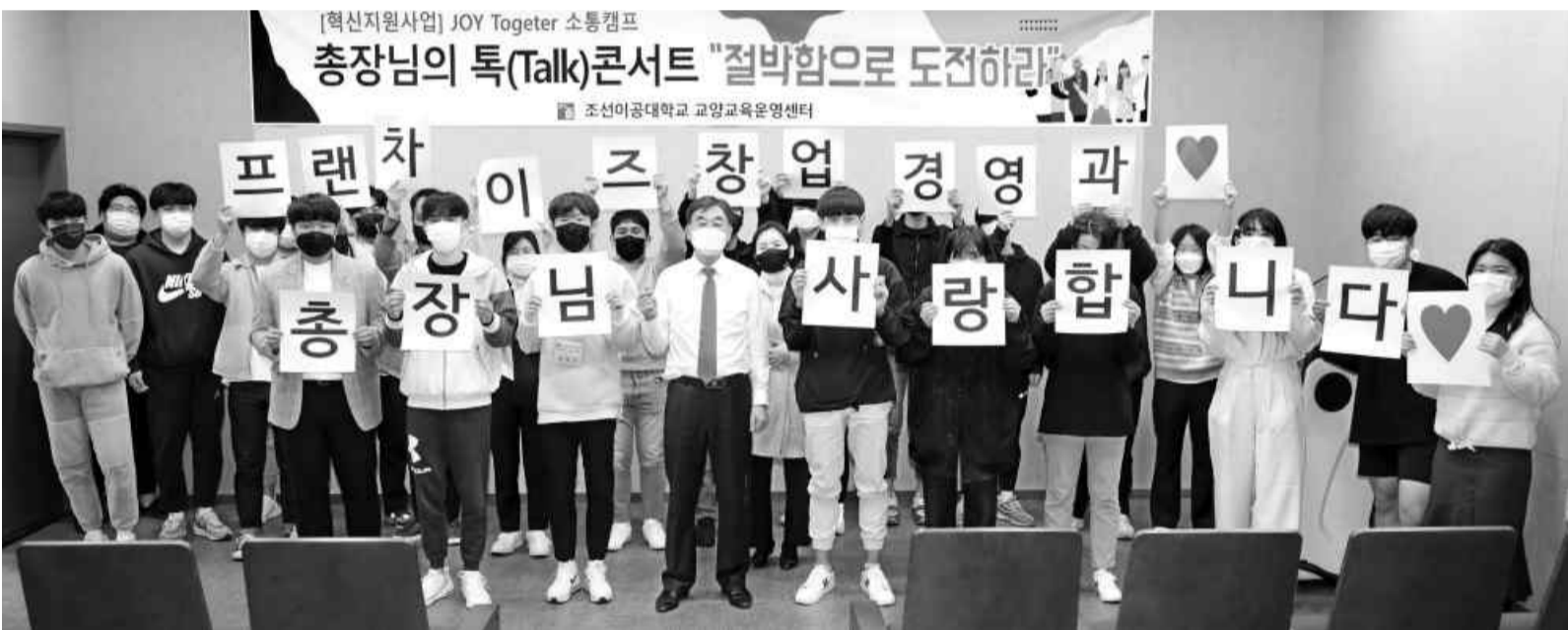
채희금 오산초 교장은 “농산어촌 유학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간 후 참여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면서 “이번엔 서울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했지만 다른 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넓혀 확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인해 도시지역 상당수 학교가 등교수업을 못했으나 오산초는 지난해 한 달만 비대면 수업을 했고 나머지 기간은 전교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교했다”며 “코로나 시대에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인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곡성 오산초의 6학년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따라 아이패드를 활용해 드론을 날리고 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이 서울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유학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학교생 66명, 중학생 16명 등 모두 82명이 지난달부터 전남지역 10개 시·군 20개 소규모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고 있다. /곡성=글 사진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이공대 ‘총장님의 특 콘서트’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로 3년째 학과별 강의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선이공대는 “지난달 15일 군사학부 특강으로 시작된 ‘총장님의 특(talk)콘서트’가 기세급승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조선이공대 제공)

광주대, 신입생 마음건강검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음건강검진 맞춤형 프로그램’은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가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격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A-D까지 총 4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A단계인 온라인 성격검사 ‘e-mind’를 통해 7가지 특성의 프로파일을 작성,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한다.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B단계(온라인 성격해석특강 ‘마음 see’)는 성격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해당하는 해석 동영상 청취하게 된다. C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직접 학(부)과 신입생들을 만나서 나와 타인의 이해 증대를 위한 성격이해 워크숍 ‘티키타카’를 개최해 학교생활 등을 공유하고 개선점 등을 찾아간다. 마지막인 4단계에서는 3단계로 통해 발견된 고유특성 학생을 신중하게 지원하고 1:1 맞춤 상담 ‘스마일’을 진행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생체소재 기반 인공근육 성능의 한계 돌파구 마련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 한·중 공동연구 저명 학술지 표지 선정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소장 박종오) 최근 표지 연구팀과 중국 절강이공대학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매우 낮은 전압에서 세계 최고의 변형률을 갖는 생체소재 기반 인공근육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소프트로봇(soft robotics) 분야의 핵심기술로, 기존 생체소재 기반의 인공근육 기술의 ‘높은 구동전압 및 낮은 반응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소프트로봇은 문어, 물고기 혹은 미생물 등 유연한 동물의 움직임에 모방해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형태가 변하는 특징으로 의료, 재활, 웨어러블 로봇 등의 분야에서 전통적인 금속 로봇의 결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분야 연구자들은 소프트로봇을 구동하기 위해 저소음, 저진동, 낮은 전력소비량 등의 특성

을 갖는 이온성 소프트 액츄에이터 개발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웨어러블 및 인체 내 삽입이 가능한 의료용 소프트로봇 개발을 위해 인체 친화적인 생체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 액츄에이터, 이른바 인공근육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생체소재를 기반으로 한 이온성 소프트 액츄에이터는 매우 낮은 변형률과 반응속도, 그리고 짧은 수명으로 소프트로봇에 응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공동연구팀이 생분해·생적합성 소재인 박테리아 셀룰로스 기반의 소프트 액츄에이터에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피롤(Polypyrrole)을 코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변형률과 반응 속도를 갖는 이온성 소프트 액츄에이터(인공근육)를 개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창업 동아리 모집 ... “준비된 창업가형 인재 키운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업가의 꿈을 키워준다. 동강대 창업지원단(단장 박경우)은 ‘2021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창업동아리를 모집한다. 동강대는 지난 2015년부터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을 펼쳤다. 특히 뷰티미용과(작두콩 추출물을 함유한 샴푸와 그 제조방법)와 호텔관광과(수박

포장용 박스)는 특허출원 아이템이 특허등록을 받았고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응급구조과(휴·MBT)와 방사선과(Scotty) 동아리는 아이템 3건에 대해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모집기간은 5월4일까지로 IT, 식품·생명,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동강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0타경 73106	1	북구 운암동 210-12 1188㎡ [공유자정경학지대 1/3전부]	답	317,840,000 317,840,0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14480	1	동소 210-13 2100㎡ [목욕1과지분동일] [물건번호 1: 식재면적 100㎡ [소나무, 갈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등] [매각제외]	답	13,608,000 13,608,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0타경 74246	1	정성군 삼서면 우리리 67-1 1701㎡ [공유지대 1/2전부 2/7전부]	답	13,608,000 13,608,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0타경 75089	1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신146-1 5894㎡	임야	81,910,000 81,910,000	일괄매각, 목욕, 1.3준비포장임도에접함
2020타경 76303	1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55-5 43㎡ [공유자분대주지분 1/4전부]	전	14,337,000 14,337,000	지분매각, 일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현황목적, 행지
2020타경 12606	1	서구 금호동 908-6 212.3㎡ [제외의 창고 등 51.1㎡ [제외의연몰포함]	대	762,149,000 762,149,000	일괄매각, 목욕2건, 물욕소재매각제외, 컨테이너11동소재
2020타경 14213	1	서구 회재로 1050, 4층 406호 [용임용, 개소준비] 31,3652㎡ [매수인에게대항할수 있는농구순회1번주택임차권등기 [전입일2018.06.21, 확정일2018.07.17]]	근린시설	114,000,000 114,000,000	전면매각제외지나 임원전액매수인 아닌수함
2020타경 74161	1	나주시 상아4길11, 1층 1번 107호 [빛가람동, 빛가람대합차량주유시설] 86.51㎡	근린시설	704,000,000 704,000,000	근린시설
2020타경 12996	1	사용본거지: 광주 광산구 신광동 48번길 6-1 5 [신창동, 다이아빌] 등록번호: 324부2726 차량: 그랜저 연식: 2016 [계기판에연진경고등표시되어있었는것으로보아 이미매각된것으로판정가능할수있음 [감정평가서참조]]	자동차	12,000,000 12,000,000	보관장소: 광주광 51, 11, 902호 [핵심요소] 등록번호: 21113975 차액: SM3 연식: 2019
2020타경 75546	1	사용본거지: 광주 서구 매월동 매월2로 15번길 16, 107동 214호 [매월종합상가] 등록번호: 광주03다5638 기종: 로터 연식: 2003 [본건조사시점계기판상업시간은25,818.4hr, 시동가능하나정적동력및운행가능성여부확인불가능, 운전석앞유리및버킷모서리부분일부파손, 변속판이후면1개만부착되어있었음, 견설기계등록번호상업용시간은2019.08.01.-2021.07.31.임.]	건설기계	31,700,000 31,700,000	보관장소: 광주남구수암로124-3층원주차장
2020타경 75980	1	사용본거지: 광주 북구 누동동 현변로 283길 11-1 등록번호: 91대3019 차량: 봉고111 1톤 연식: 2015 [본건조사시점계기판상업용거리86,072km, 입고시점에상업용자동차로탈문되나조사시점에서는시동불량상태]	자동차	9,000,000 9,000,000	보관장소: 광주남구수암로124-3층원주차장